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제617호

지면안내 04 사회 자각 문턱에 걸린 청년월세 지원사업 06-08 제40회 한성문학상 09 사람사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설계하다 12 기획 차, 청년의 일상을 적시다

교수조합, 평의원회 교원대표 인사 개입 의혹 제기

대학본부 “정관과 학칙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해”

한성대학교 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조합)이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교원대표 선출 무효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조합은 교수회를 통한 교원대표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교수진의 의견 표출이 제한됐으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적인 이상이 없는 선출이었다는 입장이다.

교수조합은 선출된 평의원 교원대표를 부정하는 의미로 지난 10일 상사관, 연구관 등 교내 곳곳에 대자보를 게재했다. 구체적으로 ▲교수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것 ▲교수회 회의 및 평의원 선출 과정에서 대학본부의 개입을 전면 차단할 것 ▲평의원 교원대표 선출권을 교수진에게 전적으로 일임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평의원회는 등록금 책정, 예·결산, 교육과정 등 대학의 주요 교육·재정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고등교육법』과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이하 정관) 등에 따라 교원 5인, 직원 3인, 조교 1인, 학생 3인 등으로 구성되며 각 단위를 대표하는 이들이 평의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평의원회 교원대표 선출은 교원대표 5명 중 4명의 임기가 지난 15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됐다. 교육혁신처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교수회를 통해 단과대학별 후보를 선출하는 1차 투표를 실시해 각 단과대학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확정했다. 이어 9

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교수회 차원의 신입 확인을 위한 2차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기면서 10월 13일 해당 4명 모두 교원대표 후보자로 추천됐고, 지난 15일 총장의 위촉을 거친 뒤 평의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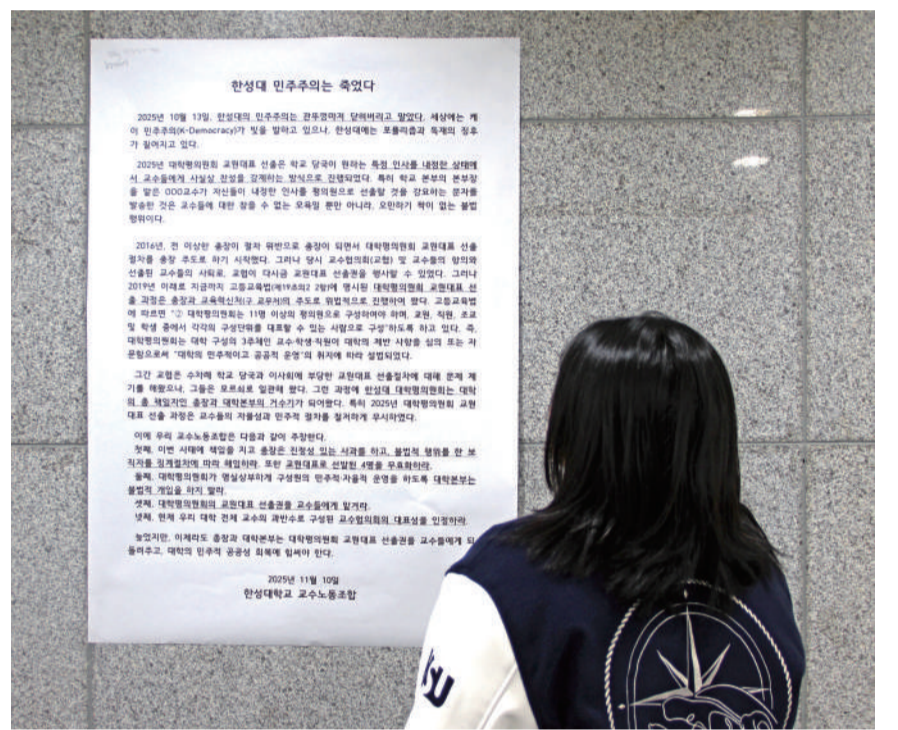
교수조합 측은 교수회가 평의원회의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로 총장이 장을 맡는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성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성격이 전환됐다. 개정 전에는 교수협회가 사실상 전임교원을 대표하는 기구였으나, 개정 후 총장의 자문기구였던 교수회가 전임교원의 대표 기구로 자리하면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수협회는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교수들의 자치기구로, 현재 전임교원의 70% 가량이 가입해 있다. 학칙 개정 당시 교수협의회 측은 학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며 대학본부와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김기욱 교수조합 위원장은 “2017년도까지는 교수협회의 회장이 평의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 주체들과 논의해 단과대학별 교원대표를 1명씩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본부는 정관과 학칙에 따라 교수회를 거쳐 심의하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성대학교 학칙』 제65조는

교수회를 단순 자문기구가 아닌, 모든 전임 교원의 대표성을 갖는 자문·심의 기구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환 교육혁신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재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된다”며 “필요시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조합은 평의원회 교원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교수회 회의의 주관하며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처가 ‘총장의 위임을 받아 교수회 서면회의를 진행한다’라는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는 평의원회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교원대표를 선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교수회 서면회의가 개최되기 전 총장이 임명한 주요 보직자가 거론된 문자를 보냈다”며 “평의원회 교원대표 선출을 ‘사실상’ 특정 인사로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역설했다.

대학본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단순 회의 개최를 안내하는 문자로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의원회 간사가 소속된 전략평가관리팀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는 후보자 추천 미투표 인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었다는



▲지난 10일 상사관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대자보

설명이다. 김 처장은 “9월 10일 자로 대학 평의원회 교원 평의원 추천 의뢰건” 공문을 발송받았다”며 “이에 단과대학별 최다 득표 교원을 선출하고 전체 전임교수의 신임을 확인하는 2차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자의 경우 교수회 회의 소집 및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미투표자에게 발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조합은 지난 1일 ▲총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본부장 해임 ▲교원대표 4명 선출 무효화 등을 주장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 위원장은 “이사장과 총장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라며 “아직까지 대학본부로부터의 답변은 없다”고 밝혔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상빌 쓰레기장 불만, 분리배출 교육 강화 예정

상빌리지(이하 상빌) 쓰레기장의 공간이 협소해 쓰레기 적체와 분리배출 미흡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주생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상빌 행정실은 쓰레기장의 공간 확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분리배

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입주생들은 쓰레기장의 좁은 공간으로 인해 쓰레기가 빠르게 쌓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빌 정문 앞에 위치한 외부 쓰레기장은 공간이 협소해 적체 현상이 심각

하다는 의견이다. 최준서(인문 4) 학생은 “외부 쓰레기장의 경우 2명도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비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형기(상상력 1) 학생은 “몇백 명이나 되는 입주생 수에 비해 쓰레기장의 크기가 작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분리배출 미준수로 인한 어려움도 존재한다. 주말이 끝난 뒤 월요일 아침이면 쓰레기장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는 모습이 확인됐다. 상빌 청소를 담당하는 유상희 청소노동자는 “떡다 남은 음식물이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려져 있는 등 분리배출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거 작업이 까다롭다”고 전했다.

상술한 의견과 관련해 상빌 행정실 측은 현재 시설 여건상 쓰레기장의 공간 확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쓰레기장 인근의 소방 시설과 주차장 관리 문제로 인해 쓰레기장 공간을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임진경(행복기숙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입주 오리엔테이션 때 분리배출 교육을 실시하고 문자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라며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는 학생의 경우 정기적으로 CCTV를 통해 확인하며 반복 위반 시 강제 퇴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빌리지 공동취사장 쓰레기통에 쌓인 쓰레기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총선거 마무리, 중앙기구 모두 당선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026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이하 총선거)’가 진행됐다. 출마한 모든 중앙기구가 당선됐다. IT공과대학과 미래플러스대학은 선거 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출마하지 않았다.

제41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결과 ‘온(ON:繩)’ 선본의 정윤지(문콘 3) 총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3,081표(85.48%), 반대 523표(14.37%)로 당선됐다. 재직인원 6,575명 중 3,604명(54.81%)이 투표했다.

제42대 총대의원회 선거에서 ‘백야’ 선본의 정의자 후보 김현진(문콘 3)과 부의장 후보 이주연(ICT 3)이 선출됐다. 재직 대의원 46명 중 43명(93.48%)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3표(100%)를 얻었다.

제43대 학생복지위원회 선거는 재직인원 6,575명 중 3,604명(54.81%)이 투표했다. 개표 결과 ‘서사’ 선본의 서은우(문콘 2) 정위원장 후보와 신이슬(산공 3) 부위원장 후보가 찬성 3,071표(85.21%), 반대

533표(14.79%)를 받아 당선됐다.

제40대 동아리연합회 ‘VYNE’ 선본의 정희장 후보 황유빈(뷰티 3)과 부회장 후보 조혜진(문콘 3)이 선출됐다. 재직인원 6,575명 중 3,604명(54.81%)이 투표해 찬성 3,064표(85.02%)로 집계됐다.

제10대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선본 ‘인화’가 찬성 435표(83.02%)를 획득했다. 934명의 재직인원 중 524명(56.10%)이 투표에 참여했다. 정학성회장 후보 하현구(무용 2)와 부학생회장 후보 신혜원(인문 2)이 당선됐다.

제30대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선거 결과 ‘도성’ 선본의 정학성회장 후보 남도경(사회과학 3)과 부학생회장 후보 서지연(사회과학 2)이 선출됐다. 찬성 618표(85.48%)를 득표했다. 재직인원 1,245명 중 723명(58.07%)이 투표했다.

재직인원 1,182명 중 674명(57.02%)이 투표한 제9대 디자인대학 선거는 ‘다이트’ 선본의 최해린(매선 2) 정학생회장 후보와 최수아(ICT 2) 부학생회장 후보가 찬성 596표(88.43%)를 얻었다.

제5대 창의융합대학 선거에서 ‘사계’ 선본의 정학성회장 후보 유선우(문콘 3)와 부학생회장 후보 김예림(문콘 2)이 찬성 384표(89.93%)로 선출됐다. 재직인원 704명 중 427명(60.69%)이 투표했다.



▲제41대 총학생회 당선자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블렌디드 러닝 개편된다

▲미래관 1층에 위치한 디지털 스튜디오

2026학년도부터 블렌디드 러닝 운영 구조가 개편된다. 온라인 수업 2시간과 대면 수업 1시간이 혼합된 형태는 폐지되고, 온라인 비중은 30~50%로 조정된다. 대학본부는 학습 효과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대면 수업 확대 논의를 위한 학생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편은 지난 4일 개최된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번 개편을 통해 '온라인 2시간+대면 1시간' 수업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교수자는 내년 1학기부터는 주차별 블렌디드 러닝 비율을 '온라인 1.5시간+대면 1.5시간', '온라인 1시간+대면 2시간' 중에서 선택해 할 수 있다.

대학본부는 블렌디드 러닝 수업 비율을 기존 약 75% 이상에서 30~5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박용훈(학사운영팀) 팀장은 "전공 블렌디드 러닝 만족도 조사에서 온라인 비중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면 수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 학생대표들과의 인터뷰와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설문조사는 대면 수업 확대와 관련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오는 겨울방학 중 실시될 예정이다. 박 팀장은 "학생들의 의견과 강의실 활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면수업 확대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블렌디드 러닝 적용 교과목 선정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된다. 연구는 운영 현황, 학습자 인식, 학업 성과 등을 분석해 새로운 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동화(교수학습센터) 부팀장은 "블렌디드 러닝 전반에 대한 정책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격수업 품질 관리 역시 지속된다. 전영돈(스마트융합교육센터) 센터장은 "원격수업 운영 규정"에 따라 제작 후 3년이 지난 원격 콘텐츠는 폐기 또는 수정하고 있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따른 양질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인 HS콘텐츠강의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는 이번 개편으로 블렌디드 러닝의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많은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박 팀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수업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한성학원 정관 일부 개정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이 지난달 4일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시행된 「한성대학교 행정조직 개편안」에 따른 조직 체계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제53조 제1항의 교직원 인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 인원이 변경됐다. 기존 13인에서 '11인 이내'로 인원이 조정됐다. 이는 인사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제53조 제2항의 경우 인사위 '위원회'에서 '인사위'로 인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자가 수정됐다. 전장배(법인사무국) 국장은 "기존 인사위 위원은 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등 학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인사위 인원 조정을 통해 위촉직 위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4조 제1항의 인사위 위원장이 교무처

장에서 교학부총장으로 변경됐다. 인사 선출 과정에서 교학부총장이 교무, 학생 관련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 인사위 대표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제89조 법인 사무조직에 관한 사항도 수정됐다. 제89조 제1항은 법인사무국의 역할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한 기관'에서 '법인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표현이 구체화됐다. 이 과정에서 '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補)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제89조 제2항은 국장이 사무국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바뀌었다.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과 운영체계에 대한 내용까지 새로 담기며, 분장업무를 규정하는 제89조 제3항은 삭제됐다. 전 국장은 "조직의 현실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정관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산 기자 kimsan060421@naver.com

대의원총회서 학생회칙 정비

'2025학년도 하반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지난 13일 탐구관 B101호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하반기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와 '단과대학 학생회칙 전면 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발의된 모든 안건은 재적 대의원 27명 중 각각 27명, 26명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제정 및 개정된 총학생회칙과 단과대학 학생회칙은 가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낙산의 메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학생회칙 제76조 제2항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구성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의 선거가 무산되거나 각 학생자치기구의 정·부대표자가 공석일 경우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

록 규정했다. 그러나 2025학년도 동연의 사퇴로 인한 운영 공백이 발생하며 동연도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이연준(컴공 4) 총대의원은 "학생회칙상 동아리대표자회의가 동연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결정과 운영권을 갖고 있어, 비대위 구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차기 총대의원회 측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든 단과대학의 단과대학 학생회칙은 전면 재제정됐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일부 단과대학 학생회칙이 유실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던 데 따른 조치다. 단과대학별 학생회칙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기본 구조와 역할, 선거·집행 체계, 권한과 책무 등 학생자치기구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칙을 담고 있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캠퍼스, 디자인&스토리 공모전 시상식 성료



사진 제공 : 서예원

▲대상을 수상한 팀이 제작한 '한성인으로 살아남기' 웰컴 키트

'2025 한성대학교 디자인&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이하 시상식)'이 지난 18일 상상관 9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디자인&스토리 공모전은 학생들이 느낀 우리 대학의 매력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풀어내어 학교 홍보 콘텐츠의 폭을 넓히고자 글로벌상생홍보팀에서 올해 처음 주최한 행사다. 공모전에는 총 41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 중 22개 팀이 수상했다.

▲이창원 총장 ▲김지현 글로벌협력처장 ▲글로벌상생홍보팀 등이 참석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상(1팀) ▲최우수상(3팀) ▲우수상(8팀)에게 각각 150만 원, 70만 원, 30만 원의 상금과 총장상(대상, 최우수상),

부총장상(우수상)이 수여됐다. 장려상(10팀)의 경우 상금부기 에코백과 키링 등의 학교 기념품을 제공받았다.

심사는 글로벌협력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본교의 홍보위원회가 담당했으며, 심사 기준은 ▲진정성 ▲창의성 ▲실제 활용 가능성 및 완성도 등이었다. 김 처장은 "학생이 직접 만든 콘텐츠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했다"며 "과장된 표현보다 자연스럽게 현실적인 스토리가 담긴 작품을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대상을 받은 팀 '브페밀리'의 팀장 서예원(ICT 4) 학생은 "신인생이 본교에서의 첫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

보와 용품들을 담은 '한성인으로 살아남기' 웰컴 키트를 제작했다"며 "완벽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처음으로 학생들의 시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통해 본교를 홍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학생들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의 완성도와 실제 활용성이 특별히 높았다"며 "실제 대학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공모전을 정례화해 학생 참여 중심의 학교 홍보·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연우 기자 kitewoo247365@naver.com

마케팅 영역 AID 묶음강좌 수강자 모집

'제작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AID 묶음강좌(이하 AID 묶음강좌)' 수강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AID 묶음강좌는 마케팅 분야에서의 AI·디지털 활용을 교육하는 온라인 강의로, 본교가 지난 5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제작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AID 묶음강좌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것의 일환이다. 대상은 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마케팅 분야 제작자와 해당 업계로 이직을 준비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본교 재·휴학생은 e-class 공지사항에 게시된 K-MOOC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AID 묶음강좌는 '생성형 AI의 반란, 마케팅을 혁신하다'라는 교육 과정 안에서 난이도에 따라 ▲핵심 ▲실전 ▲마스터

단계의 총 3개 강좌로 구성되며, 전체 19주 과정으로 이뤄진다. 먼저 핵심 단계에서는 생성형 AI의 원리와 데이터 활용법, 마케팅 전략 등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실전 단계는 빅데이터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마스터 단계에서는 이전 강의들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AI 에이전트화를 통한 AI와 마케팅 자동화하기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AID 묶음강좌 전 과정을 이수한 재학생은 최대 이수학점 이외에도 2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강좌 수강인원에 한해 빅데이터 솔루션 'TEXTOM' 유료 라이선스 계정이 제공되며, 전체 수강자 대상으로

학습 경험과 성과를 기록한 디지털 증빙 도구인 디지털 배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강좌 이수를 위해서는 각 강좌에서 ▲영상 진도율 ▲주차별 퀴즈 ▲과제 ▲프로젝트 등의 평가에서 60점 이상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박종향(스마트융합교육센터) 연구교수는 "AID 묶음강좌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활용해 마케팅 분야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강좌 수강을 통해 학생들이 AI 시대의 기술 동향 및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핵심 기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kitewoo247365@naver.com



제19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제19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이하 대회)' 본선이 지난 13일 탐구관 B101호에서 개최됐다. 학생의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는 대회로, 세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AGI 시대 속 대학의 교육 방향 ▲교양 교육의 미래 ▲본교 학생의 진밀감 고취 방안 등이다.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7개의 팀이 참가했으며 본선 직후 총장 축하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심사 후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4팀) 수상이 이뤄졌다. 입상자에게 각각 8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자들에게 40pt의 비교과 포인트가 지급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형준(사회과학 3) 학생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선욱(사교외표현과정) 교수는 "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가 실제 교과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교수진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김연우 기자 kitewoo247365@naver.com

총학 공약 만족도 조사, 차기 총학의 과제는?

미온적 반응 보여... 반복된 사업·소통 방식에는 불만 제기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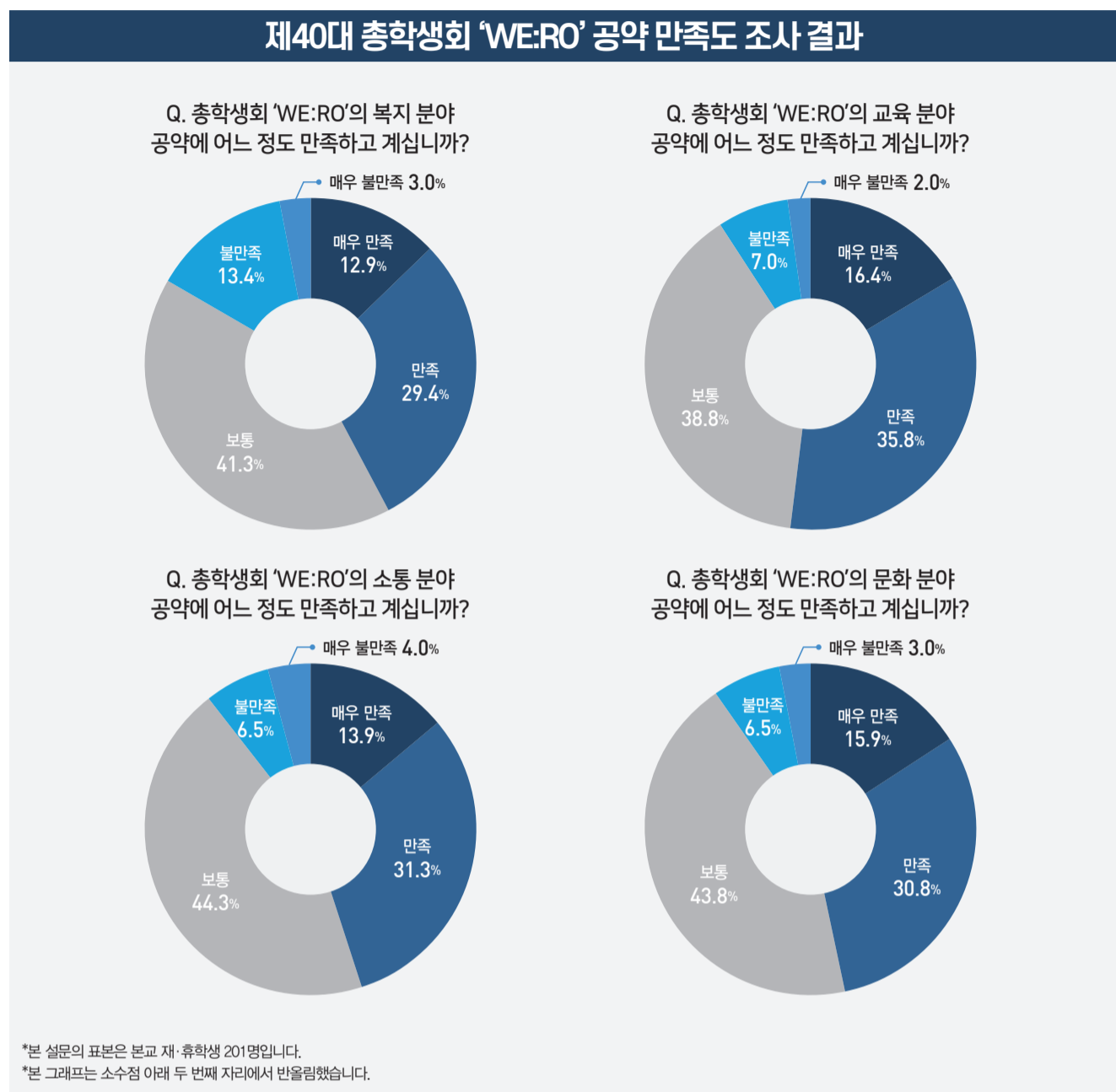
본지는 2025년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공약과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40대 총학생회 WE:RO' 활동 관련 만족도 조사(이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구글폼으로 진행해 재학생 외 총 201명의 학생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 문항은 WE:RO의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을 비롯해 복지·교육·소통·문화 등 주요 공약 분야별로 구분해 구성했다.

WE:RO의 공약은 ▲금연구역 캠페인 ▲복학예정자 총선거투표권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 ▲무료 법률 상담 진행 ▲학업 환경 조성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 ▲소모임 개편 확대 ▲에비군 학업권 보장 ▲찾아가는 총학생회 ▲총학생회 월별 달력 제작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 ▲한성마라톤 등이다. 이중 '복학예정자 총선거투표권'과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는 이행 중이며, 이외의 공약은 이행 완료됐다.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의 학생은 WE:RO의 활동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하는 제40대 총학생회 WE:RO의 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만족(16.9%)', '만족(33.3%)'의 응답이 기록되며 총 50.2%가 만족 의견을 남겼다. 만족의 이유는 '총학생회에서 기획한 행사가 유익했다(58.4%)', '총학생회의 사업으로 누린 혜택이 많았다(40.6%)' 등의 의견이 집계됐다. 최은호(AI 응용 1) 학생은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에 참여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공약이 충실히 이행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WE:RO의 활동에 불만족한 의견도 일부 도출됐다. 상술한 문항에 대해 '불만족(6.0%)', '매우 불만족(1.5%)'의 응답이 이어지며 총 7.5%가 불만족 의견을 표출했다. 주된 이유는 '총학생회의 사업으로 누린 혜택이 적었다(73.3%)',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73.3%)' 등이 있었다. 곽민호(기계 전자 2) 학생은 "전년도 혹은 그 이전 총학생회의 사업을 거의 동일하게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간식 사업처럼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외에도 새로운 시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총학의 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해 42.3%의 학생들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총학생회 WE:RO의 복지 분야 공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



우 만족(12.9%)', '만족(29.4%)', '보통(41.3%)', '불만족(13.4%)', '매우 불만족(3.0%)'의 답변이 존재했다. 만족의 이유는 대표적으로 '금연구역 캠페인(56.5%)'이 주목됐다. 채민우(컴공 2) 학생은 "금연구역에서 학생회 임원들이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해 세부적인 답변은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확인됐다. 불만족을 택한 학생들은 WE:RO의 복지 분야 공약 중 '금연구역 캠페인'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캠페인 실시 이후에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학생들이 목격됐고, 캠페인 활동도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김동원(인문 1) 학생은 "금연구역 캠페인이 진행

됐는지도 몰랐다"며 "겉핥기식으로 이뤄진 것 같았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 공약의 경우 과반수의 학생이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총학생회 WE:RO의 교육 분야 공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만족(16.4%)', '만족(35.8%)', '보통(38.8%)', '불만족(7.0%)', '매우 불만족(2.0%)'의 의견이 집계됐다. 만족하는 학생은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58.1%)'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었다. 최 학생은 "한성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학생들의 도전 정신을 북돋우고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 분야 공약에 대해 불만족한 학생들도 존재했다. 불만족의 사유로는 '학업

환경 조성(72.2%)', '소모임 개편 확대(50.0%)' 등이 존재했다. 불만족한 학생들은 교육 분야 공약이 충분히 체감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지적했다. 곽 학생은 "소모임 활동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지표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술회했다. 소통 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45.2%의 학생이 만족 의견을 표했다. '총학생회 WE:RO의 소통 분야 공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만족(13.9%)', '만족(31.3%)', '보통(44.3%)', '불만족(6.5%)', '매우 불만족(4.0%)'의 응답이 기록됐다. 만족한 학생들은 '총학생회 월별 달력 제작(70.3%)'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희서(패션 2) 학생은 "월별 달력이 지속적으로 게시되는 모

습을 보며 공약이 충실히 이행됐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불만족한 학생들은 총학생회와 학생들 간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총학생회(90.5%)'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단순 부스 운영에 머무르는 등 형식적이고 미온적이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곽 학생은 "찾아가는 총학생회라는 명칭과 달리 학생들과의 소통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며 "소통 빈도 또한 적게 느껴졌다"고 토로했다.

문화 분야 공약에 대해서는 46.7%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총학생회 WE:RO의 문화 분야 공약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매우 만족(15.9%)', '만족(30.8%)', '보통(43.8%)', '불만족(6.5%)', '매우 불만족(3.0%)'의 응답이 집계됐다. 특히 학생들은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87.2%)'를 만족의 주된 이유로 지목했다. 채 학생은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를 통해 타 단과대 학우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문화 분야 공약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일부 학생들은 공약 실행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학생은 "단과대학 연합 체육대회의 저조한 참여율을 개선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새롭게 출범한 제41대 총학생회 '온(ON:穩)'에 대해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전했다. 신 학생은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온 공약들은 지속적으로 이행하면서 그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다연(인문 3) 학생은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재(사회과학 3) 총학생회장은 "'복학예정자 총선거 투표권' 공약은 현재 총대의 원회에 안건 상정서를 제출해 추후 대의원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가근로 장학생 선정 기준 강화' 공약은 학생복지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총학생회인 '온(ON:穩)'이 공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한성대신문

마음속에 머물던 생각, 글로 남겨보세요

독자칼럼 모집

<p>지원자격 한성대학교 재학생</p> <p>주제 자유 주제</p> <p>분량 제목 제외, 공백 포함 1,100자</p> <p>혜택 비교과 포인트 10pt 지급, 칼럼이 신문에 게재될 시 소정의 원고료 지급</p>	<p>모집기간 상시 모집</p> <p>접수방법 한글 프로그램으로 칼럼을 작성해 hansungnews@gmail.com으로 제출</p> <p>문의 한성대신문사 02)760-4186</p>
---	--

자격 문턱에 걸린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월세 부담 더는 지원사업

복잡한 심사 절차 등 문제 발생

청년 현실 정책에 반영돼야

2024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9.5%의 취업에 성공한 만 19~34세의 청년 가구가 월 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하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종료 예정이던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상시 운영하도록 변경했다. 그러나 실제 청년의 처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평가까지 제기된다.

월세 특별지원은 독립 거주 청년에게 정부가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했으나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이 주거 빈곤에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이다. 김학중(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대부분 자기점유비율이 낮고 월세 거주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에 이러한 주거비 보조 차원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술한 취지에 적합하도록 독립 거주 청년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만 19~34

세 ▲무주택자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및 총자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및 총자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이 존재한다. 조건 충족 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 주거비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야심 찬 포부에 맞춰 정부는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월세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2025년 777억 원에서 2026년 1,300억 원으로 늘려 지원 인원을 약 6만 명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혁서(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 해당 사업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존재했다"며 "당초 한시적 사업으로 계획됐지만 연장 운용, 예산 확대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된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자는 약 49만 5,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은 16만 4,000명으로, 실질지원율은 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월세 특별지원 사업 예산 442억 원 중 212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예산의 47.96%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 사업이 청년의 실생활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이는 2025년 기준 약 월 143만 원 미만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때문에 청년 대다수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이다. 박 교수는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월세 지원사업과 차별화를 위해 중위소득 기준이 적용되지만,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더욱 낮은 소득기준이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는 탓에 청년의 실질적 자립 상황도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원가구의 소득·재산 상황을 심사하지 않는다. 독립 거주 청년이라는 신청 조건이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부분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심사는 청년을 여전히 부모 부양을 전제로 한 가족 단위의 틀 안에서 바라본 결과"라며 "이는 부모 지원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청년의 자립 상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많고 5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청 자체에 접근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본인·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9개에 달한다. 다른 조건에 해당되면 제출 서류는 늘어난다. 심사 절차도 약 45일간 5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당장 월세 납부가 밀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은 즉각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윤성진(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의 입장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 재원이 쓰이는 사업인 만큼 심사 절차가 복잡한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지원 방식이 지역·주택 유형마다 다른 주거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한다. 지역마다 주거비의 차이가 있음에도 각 청년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재 전국 주거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같은 20만 원이라도 어떤 곳에서 충분히 다른 곳에서 턱없이 부족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년의 실생활을 반영하지 못한 조건 수립의 원인으로 청년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업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23년 주거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요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하지만 예산 총액이 먼저 확정된 후 지원 기준을 설정하는 형식의 사업 구조를 갖다 보니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다는 견해다. 김지선(성북구청복지센터 이주지원팀) 팀장은 "청년층 수요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미리 정해진 예산에 맞춰 기준을 세우다 보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서류 제출과 심사 과정 복잡함의 원인으로 행정 처리 절차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꼽힌다. 현재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뉘는데, 두 방식 모두 9개의 서류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임대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확정일자 날인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듯 행정절차가 과하게 분화돼 청년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의견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부정수급의 우려도 존재해 심사 절차가 복잡해졌으나 청년의 입장에서는 간소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이 주거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원 금액 산정에 대한 고려 부족에 기인한다. 여러 지자체가 월 20만 원 정책 지원을 운영해 온 관행을 중앙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실제 부담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견해다. 윤 부연구위원은 "20만 원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타 지자체의 월세 지원 사업에서 책정했던 금액을 그대로 차용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청년의 실제 생활과 가족관계 등을 반영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정책 시행 전 '주거실태조사'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한 정량 분석은 존재했다. 그러나 청년의 실태를 반영한 질적 수요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선이다. 김 교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등 청년 유형에 따른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당국은 예산과 수급률 변동을 예측하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까다로운 심사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위소득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 등으로 낮추는 형태다. 김 팀장은 "2년

이라는 짧은 수혜 기간을 고려하면 청년가구 중위소득 기준을 완화해 수혜 가능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청년의 독립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청년을 원가구에 종속돼 있지 않은 독립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정부는 청년을 원가구의 부양 대상이 아닌 원칙적으로 독립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며 "동시에 가족 갈등·관계 단절 청년을 위한 별도 특례 채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신청 절차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 통합 절차를 구축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기존 정부24 홈페이지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로 자동 연동돼 서류를 점검한다면 심사 과정이 간소화될 수 있다는 견해다. 김 교수는 "복지제도 전반이 온라인 행정정보 연계로 통해 서류를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행정정보 전산 연계 확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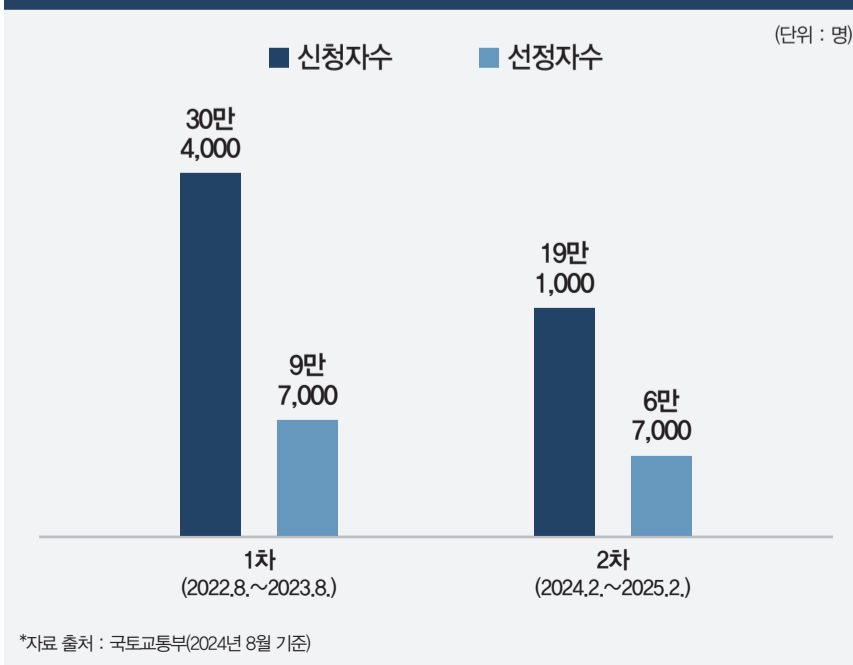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등 실질 부담 지표를 고려해 지역·유형별 편차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의 임대료 보조 제도인 'HAP(Housing Assistance Payment)'와 유사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지역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차등 지원을 실시하며, 임대료 보조와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방식이 도입된다면 지역별 임대료 격차가 큰 국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팀장은 "RIR 등의 지표를 활용해 거주 상황을 반영한다면 청년에게 보다 직접적인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충분히 시도해 볼만하다"고 전했다.

결국 월세 특별지원 사업 전반에 걸친 개편과 조건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수혜자 수, 즉 실질지원율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박 교수는 "한시로 운영했던 사업인 만큼 모순점과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사업이 상시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기점유비율 : 일반가구 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붕괴와 재건 사이, 대학의 내일을 묻다

〈편집자주〉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장기화 등으로 인한 복합적 위기가 대학 전반을 흔들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정부 지원 금액이 적고 적립금과 수입구조가 취약해 재정·운영 압박이 심화됐다. 한성대학교의 경우에도 2024년도 기준 등록금 의존율이 59.6%로,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개한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0.1%다.

이러한 위기 속 지난 8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제정됐다. 15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이 법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구조개선, 해산·청산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해당 법령이 부실 사립대학의 재정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반면 대학 구조조정이나 강제 해산·청산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노동권을 넘어 대학자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사립대학이 직면한 위기의 실태를 짚어보고, 구조개선법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보완돼야 하는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학교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부분 임대용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최현택(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구조개선센터) 센터장은 “사립대학 운영이익이 매년도 감소하는 등 사립대학 전반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학교법인과 대학은 운영비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중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총원인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10여 년 넘게 유지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재정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용기(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많은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신입생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결국 대학 구성원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축소, 전공 폐지, 부실한 학습 공간 등으로 정상적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재정난으로 파산한 한국국제대학교의 경우, 폐교를 앞두고 학생식당 운영과 승강기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에 노출되기도 했다.

특히 교직원들은 최소한의 임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처지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폐교대학 교직원 임금 체불 현황」에 따르면, 폐교된 대학 교직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총 800억 원을 넘어선다. 신경주대학교(구 경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등의 일부 사립대학은 100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안은 채 운영하고 있다.

상술한 문제가 누적되도 기존 법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사립학교법』 제34조는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를 ‘목적 달성의 불가능, 파산, 합병’ 등 제한적 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학생 수 급감으로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해산을 허용하는 특례는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됐다. 이외의 재정 관

련 사항도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의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묶여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은 대학 구조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제약 받아 왔다.

이 같은 구조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통과됐다. 법령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매년 재정진단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 절차 도입 ▲사립대학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관한 특례 ▲폐교 및 해산 절차에 대한 특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손대기 어려웠던 사립대학의 정리·통폐합·재정 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대학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영위기대학’ 정리에 초점을 맞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법령은 사전 지원보다 경영 위기 대학 지정 이후 통폐합이나 폐교 유도에 더 초점을 둔다. 이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 재정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영 상황이 심각한 사립대학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고등교육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바지한다는 반론도 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되는 사립대학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학내 구성원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사립대학은 해산이나 구조개선 절차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해당 법령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부실 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이다. 오정민(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빠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화된 문제들이 점차 심화되기에 통폐합·폐교 등의 정리 역시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포함된 ‘해산정리금 제도’가 교육재산이 사적으로 이전될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해산정리금 제도는 크게는 배임”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산정리금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잔여재산의 전액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재단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회피해 부실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센터장은 “현재 상황에서 놓인 사립대학에 퇴로를 제공할 수 있는 해산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폐교·해산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편익 비용 지원과 위로금 지급, 직원 퇴직 위로금, 교원 연구비 지원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교 이후 재정이 사실상 고갈되는 현실은 이러한 보상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 대



그림 : 임지민 기자

도록 규정한다. 공공성을 지닌 교육용 재산이 개인재산으로 이전될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고영남(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개인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해산정리금 제도는 크게는 배임”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해산정리금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잔여재산의 전액 국가 귀속을 원칙으로 할 경우, 재단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회피해 부실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센터장은 “현재 상황에서 놓인 사립대학에 퇴로를 제공할 수 있는 해산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폐교·해산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편익 비용 지원과 위로금 지급, 직원 퇴직 위로금, 교원 연구비 지원 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교 이후 재정이 사실상 고갈되는 현실은 이러한 보상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할 방안이 대

한 세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주 이사장은 “현재 폐교된 대학 구성원의 어려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인 보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으로 대학 구성원 보호와 관련해 강제력이 강화됐으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세부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최 센터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학생, 교직원, 연구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관련 제도가 신설돼 병행된다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비리를 저지른 재단이 법인을 해산하는 ‘떡튀 해산’을 막기에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폐교·해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재량을 넓혀 기존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약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고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목적 달성의 불가능’의 경우에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이에 대한 기준

에서 벗어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구조상 떡튀 해산이 어려워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18조에서는 폐교를 위한 과정에서 구성원의 2/3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감사 과정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행되기에 현재 제기되는 우려들은 운영 전 단계에서 나온 막연한 걱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서 규정하는 구조개혁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영위기대학 정리를 넘어 재정 결손 초기 단계의 대학까지 구조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 이사장은 “학교가 보유 재산을 활용해 확보한 재원을 교육에 재투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적 보완과 대학 법인의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역시 구조개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난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

역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에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폐교·해산에 따른 문제 최소화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전제된 대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학 구조개혁이 ▲정부 재정지원 확대 ▲지방·수도권대학의 상생 전략 ▲대학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등의 중장기 과제를 포괄하는 방안이 강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간한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17조 8천억 원으로 GDP의 0.82%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주 이사장은 “단기적 과제 중심에서 나아가 총체적인 고등교육 개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적립금 : 특정한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치하는 자금
**배임 : 신임관계를 위해 배타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제40회 한성문학상



소설 부문

수 상 | 윤승희(인문 3)
심 사 | 김동환(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삼 화 | 정보연(CT 3)



시 부문

수 상 | 강지환(사회과학 4)
심 사 | 문태준 시인
삼 화 | 정보연(CT 3)



시 부문 당선작

고양이

강지환

가만히 너른 달빛 아래

나지막이

다가와

러그 위를 땀돈다.

무심한

발끝,

소리 없이 옮기며

어둠의 주인이 된 듯이 선다.

잠든 창가를

차지한 그 눈.

커다란 틈 사이로 투명히 파고든다.

푸른

향기를 헐떡이며

하루의 끝을 물고 사라진다.



시 부문 심사평 : 언어의 절제미와 응시의 힘 돋보여

제40회 한성문학상 시 부문 응모작들을 면밀하게 읽었다. 각각의 작품들은 특별하게 고유했다. 자신만의 생각과 그것의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을 노래했다. 심사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한 편의 시의 탄생은 새롭게 감각한 내용의 출현이면서 동시에 진전된 사유의 개진이라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시의 묘과 역할로 인해 이 세계는 이전보다는 훨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시 「작은 등불」, 「노주(老柱)」, 「눈」,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잘 살자 우리」, 「일차할수」, 「첫사랑」, 「아직도 나는」, 「父母」, 「여름」, 「노이즈 캔슬링」, 「쿠르스크」, 「자야고백」, 「별밤」 등의 작품에서 보처럼 빛나는 시구가 있어서 주목했음을 밝혀둔다.

수상작 선정을 두고 마지막까지 숙고한 작품은 시 「고목」과 「고양이」였다. 시 「고목」은 시련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조용한 중심”을 이뤄가는 과정을 한 그루 나무의 성장에 견주어 노래한 작품이었다. 「잎처럼 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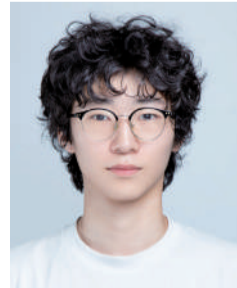
은 희망 위로/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운기가/ 채 단단 해지지 못한 속의 결을 바꾸어 놓았지요.”와 같은 대목은 언어를 다루는 솜씨를 자랑하는 시구였다. 다만, 시행(詩行)의 진전이 더디지고 다소 반복되는 느낌을 갖게 해 아쉬웠다.

제40회 한성문학상 시 부문 수상작으로 시 「고양이」를 선정했다. 이 화성이 함께 응모한 작품들은 고된 수준을 보여주었고, 공통적으로 언어를 극도로 절제하면서도 시적 대상에 비석 가까이 다가붙는 힘이 있었다. 그만큼 시적 대상에 대한 고도의 응시력이 배어났다. 대상이 지닌 고유한 정지, 그리고 돌연한 활동을 교차해서 부각시키는 대목도 신선하고 매력적이었다. 시적 재능이 충분한 만큼 자신감을 갖고 더 활발하게, 마음껏 언어를 활용해도 좋겠다는 조언을 드린다. 응모한 모든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수상자에게는 축하의 말을 전한다.

문태준 시인



시 부문 수상소감



강지환(사회과학 4)

시를 쓸 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창의성이었습니다. 막연한 마음가짐으로 쓴 시들은 제가 생각해도 오글거리거나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난 왜 못 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문 한다는 키워드가 머리에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내가 못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정박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제가 고양이 일러지가 있다는 사실이 기

억났습니다. 고양이를 좋아해도 만질 수 없다는 것이, 마치 시를 쓰고 싶는데 잘 안되는 제 상황에 맞는 것 같아 고양이를 주제로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목에 들어가게 고양이를 본편에 넣지 않는 방식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고양이라는 단어 없이 고양이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우연히 접어넣었던 단어들을 가나다라 순서대로 배치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서대로 시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자가 본문에 없으므로써 달고 싶지만 달을 수 없다는 느낌을 살리고자 했고 그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느낌을 살려 시를 작성했습니다.

알려지라는 단점이 오히려 고양이라는 대상에게 절박함과 진심을 쓸 수 있게 해 준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다른 어려운 일들도 제 장점이나 특징을 활용해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설 부문 가작

나는 메리 곁에서 떠나야 한다. 원래는 메리를 죽여야 했다. 하지만 메리가 했던 가벼운 행동 하나 때문에 나의 칼끝이 떨렸다. 나의 살해 계획은 몇 번이고 잊어지고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하다 결국 실패로 끝났다.

메리는 나와 아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이다. 우리는 한 남자와 같이 살았다고 한다. 그 남자는 아주 부유하고 또 메리를 사랑해서, 메리에게 이런저런 지위를 해 주었다고 했다. 나는 그때 매우 아파서 유감스럽게도 메리와 함께한 처음 4년 정도의 기억이 없다. 그러므로 이 또한 다 메리가 해준 이야기다. 나의 기억은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한다. 내가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갖 지은 밤 냄새가 집안을 메웠다. 집안은 평범했다. 딱 무명이 살기 좋은 아담한 집이다. 벽면에는 내가 양말을 뻗으면 딱 맞는 너비의 TV가 그 아래에는 꽤 큰 수납함이 있었다. 양옆으로 방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메리의 책들로 꽉 차 있는 작업 방이고, 왼쪽은 나와 메리의 방이다. 큰 침대 하나, 나와 메리의 취향을 적절히 섞은 책이 메리보다 큰 책장에 빼곡했다.

나는 작은 식탁의 4개의 오그라진 다리를 편다. 손을 뒹구 자리에 앉으면 메리는 반찬 가게에서 사 온 음식들의 통을 연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지난 예능 방송을 본다. 메리는 재밌는 걸 좋아한다. 나는 그때 그런 걸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냥 메리가 웃으면 따라 웃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질문 하나가 내 입에 머물렀다. 사실 아직도 메리에게 그 질문을 하지 못했다.

메리, 메리는 공포 소설을 쓰면서 왜 보는 건 이런 프로만 보는 거야?

메리는 글을 쓴다. 한때 그의 글은 베스트셀러 서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 2000년대의 여름에 집필된 그 소설은 내 어린 시절을 지배할 정도였다. 내가 그 소설을 이해한 것은 7년이 지난후 즈음이다. 나는 무서운 것을 전부터 못 보던 탓이다.

메리는 글을 쓴다. 한때 그의 글은 베스트셀러 서가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 2000년대의 여름에 집필된 그 소설은 내 어린 시절을 지배할 정도였다. 내가 그 소설을 이해한 것은 7년이 지난후 즈음이다. 나는 무서운 것을 전부터 못 보던 탓이다.

메리의 소설은 끔찍했다. 끔찍한 부분에서 아주 훌륭한 소설이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그냥 그 자체로도 완벽했다. 그는 그 소설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그 때 메리는 행복해하지 않았다. 메리의 끔찍한 소설은 여러 평론가에게 정말로 끔찍하다고 혹평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평론가들이 정성스럽게 적은 비판 때문에 메리는 상처받았다. 어떤 평론가는 어느 날 새벽 예능 프로에 나왔다. 나는 TV 불빛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 말소리가 들렸다. 그 평론가의 거만한 목소리가 아팠듯이 들렸다.

조악하고 자극만 쫓는 문력에 저는 치가 떨립니다. 분명 이런 글을 쓴 작가는 좋은 작가는 아니겠지요.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평론가였다. 그때도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다. 나는 소파에 누워있었고, TV의 푸른빛을 메리가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자는 웃으며 문하에 대해 더 이야기했다. 메리의 등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메리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면서도 메리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정자세로 누워 눈을 감았다. 나의 심장 소리도 빨리 울렸다. 메리에겐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 메리를 사랑하던 남자는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가 죽었을지 싶었는지 모른다. 그 사람이 만났다면 나도 그 사랑을 꽤 좋아했을 것이다. 메리가 좋아했으니까. 나는 그때도 메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를 위로할 수는 없었다. 애초에 이런 사실을 메리가 알려주지 않았다. 그 탓에 새벽,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메리의 고민을 알게 되었다. 메리는 내가 하는 위로를 싫어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메리는 나의 위로를 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했다. 나는 어찌해야 할지 눈을 감고 생각했다.

다리를 뻗었다. 내 발이 무엇인가 닿았다. 마친, 소파 옆 탁상 위에 있던 화병이 퐁, 퐁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메리가 화병을 놓다 숨을 급히 집어먹는다. 벅, TV가 꺼진다. 나는 실눈을 뜨고 메리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얼실실 저는 사람의 숨소리를 흉내 내며 메리의 동태를 살폈다. 메리는 내 머리 위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주고, 이불을 조금 걷어주었다.

메리의 발소리가 들리고 곧 집안은 완전한 적막으

로 가득 찼다. 메리를 괴롭히던 TV의 빛이 없어진 바람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잠에 들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럼에도 나는 메리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진 못했다. 처음에는 그가 그저 작품에 아주 자부심이 있었을 거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메리는 항상 집 안에 있었다. 메리는 항상 쓴다. TV에서 평론가를 보았던 밤 이전까지는 내가 돌아와도 그저 썼다.

“식탁에 뒹어,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어.”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메리는 변했다. 그는 내가 돌아오면 미친 듯이 쓰다가 나의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는 주방으로 갔다. 애호박을 꺼내고 손질했다. 그날 먹은 된장국은 정말 맛이 없었다. 양파는 심으면 불쾌한 잔여물을 남기곤 바로 사라지고, 애호박은 여전히 단단했다.

“맛있나?”
“맛있어.”
“앞으로 내가 해주는 것만 먹어.”

그때, 메리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거렸다. 그러나 그 빛은 잡히지 않았다. 그렇기에 훗날 누군가는 한심하다 메리를 무시하고, 누군가는 그 빛이 잡히지 않기에 메리를 존경했다. 나는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저 메리의 말을 따랐다. 그날 용, 이라고 대답한 이후로는 의식을 거의 하지 않았다.

메리는 일했다. 메리는 항상 썼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어느 날은 일과를 끝내고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작은 모닝이 내 앞에 섰다. 메리였다.

어서 타, 급히 갈 곳이 있어, 메리가 말했다. 피곤했지만 모닝에 탔다. 모닝에 치우지 않은 패딩, 줄자, 김치통이 굴러다녔다. 그것만으로 뒷자리가 꽉 찼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1시간 떨어진 새집으로 갔다. 내부는 쾌적하고 넓었다. 원래 집의 2배 정도 되는 크기였다. 배란다는 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졌다. 내 방도 생겼다. 작은 곳이었지만 따뜻하고 찬 바람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자, 메리가 우물대면서 방 같이 쓰느라 힘들지 않았냐고, 자신이 노력해서 내 방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는 적당히 맞장구치며 어디에 침대와 책상을 둘지 생각했다.

우리는 저녁으로 먹을 치킨을 사고 집으로 왔다. 어느 때처럼 예능을 보고 메리는 웃었고 나는 그냥 기분 좋아서 웃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비가 왔다. 어두워서 하수도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 번개가 치면 마치 엑스레이처럼 내 몸 안까지 흑색으로 보여줄 것만 같은 빛이 번쩍했다.

그날 밤 나는 좀 메리를 귀찮게 했다. 우선 몸이 피곤했다. 일과를 끝내고 집까지 보고 오니 쉴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메리는 작은 노트북 모니터를 보고 눈을 부라렸다. 순간 그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두 동그란 눈동자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등줄기가 순간 차갑게 식으며 내 영혼이 몸의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대로 메리는 날 때렸다. 순간 눈앞이 정말 번쩍하는 거 같았다. 나는 중심을 잃고 벽에 기댄 쓰러졌다. 메리의 손과 동공이 떨렸다. 메리는 망실없이 내게 다가와 다정히 나의 얼굴을 뒤어주었다. 어쩔지 내가 뜨겁다. 내 머릿속은 아직도 번쩍이던 그 순간으로 자꾸만 돌아간다. 내가 본능적으로 눈을 감으면, 메리가 어떤 손으로 나의 작은 뺨을 때렸다. 아팠을 것이냐.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때렸으니까.

나는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내 머릿속이 어떤 의식으로 가득했다. 찬바람 몇 번이고 회상했다. 메리가 순간 나를 중심으로 증명했다고. 그리고 번쩍, 허버 풍증과 함께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눈은 뜨고 계속 생각했다. 나는 메리를 의심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었기 때문에, 그 때 정확히 상황이 어땠는지 나와 메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대신 메리의 한마디는 기억한다.

메리, 메리 프랑켄슈타인.

미안해.

메리의 두 눈이 물로 된 장막에 갇히고, 곧 잠지 못 하고 눈물이 얼굴선을 따라 흘러내렸다. 메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아마도 괜찮다고 했을 거다. 그때 나는 괜찮지도 않았고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냥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는 메리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비가 쇠를 때려 텅텅거리며 메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돌리니 메리의 옆모습이 보였다. 겹고 긴 머리는 메리의 목뒤로 가지런히 누워있었다. 메리의 평범한 얼굴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감지 하나를 펴고, 메리의 옆모습을 따라 그었다.

이미에서 나오고, 미간에서 부드럽게 들어간다. 코에서 완만히 올라가다 목 내려간다. 지휘하듯 입술을 그린다. 턱에서 내리고 올라가고, 그대로 부드럽게 목까지 내려가면 얇은 요가 메리의 몸 위에 있다. 그리고 있으니, 메리에 대해 조금 알 것도 같았다. 메리의 속내를 모를 거라던 겉모습이라고. 그리고 싶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좋은 싫든 나는 메리와 평생 함께할 것이다. 그날 밤 깨달은 것은 두 개다. 나는 사람들의 속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메리는 그냥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평소예 나를 미워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시작부터 메리가 나를 중요한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다 메리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즉, 나의 사고는 의미 없이 흔들리는 추에 불과하다.

그날 불안했던 거다. 내가 정말 잘못했을까 봐, 메리가 나를 때렸으니, 그는 극악무도한 악인이고,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인간 하나쯤은 자신의 글로 먹여 키울 수 있다는 자존심을 지키려고 나와 사는 것뿐이라고. 돈도 벌여오지 않는 내가 피곤한 메리를 건드렸다고 맞을 필요는 없다고 믿고 싶었을 거다. 모든 것은 메리의 잘못이라고 믿고 싶었을 거다.

하지만 메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랬다면 메리는 죄인처럼 굴지 않았을 거다. 나는 메리와 14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를 이해해야 한다. 이전 나와 메리를 위해서다. 메리의 겉모습을 그리면 메리가 나를 좋아할 지도 모른다. 메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메리는 메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메리의 겉모습을 잘 보이면 우리의 관계도 잘 빛낼 수 있다. 이전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됐다. 그날 내가 알게 된 너머까지 하나는 이거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안다.

내가 처음으로 했던 일은 사람의 얼굴을 빛는 일이다. 내가 메리와 상처 딱 15년이 되었을 때 처음 접한 일인데, 꽤 재미있다. 흠의 촉감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흠은 차갑고 촉촉하다. 내가 손을 댄것만으로도 하지도 나를 용어메지도 않는다. 그저 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제 몸을 바꾼다. 총성스러운 존재다. 내가 처음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메리는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는 심드립한 표정으로 타자를 쳤다. 그러다 손을 떼고는 뜰어두었던 과거 하나를 집어 먹었다. 아마 2분은 그 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기다렸다. 옆에 앉아서 눈으로 메리의 옆모습을 그렸다. 곧 메리는 입을 폈다.

“물 마실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말없이 내 조각 위에 남아있는 메리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그는 내게 조용히 관찰나고 focused. 그때 나는 울먹였다. 보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울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학원의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다들 나를 쳐다보지는 않지도 않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메리를 용하고 있었을지, 메리에게 맞장구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불분했다. 메리가 빨리 돌아오면 했다. 몸이 안 좋다고 집에 갈 수도도톡 말았다.

곧 메리는 돌아왔다. 메리는 입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가 내 얼굴을 보고 얼굴이 입꼬리를 내려갔다. 나는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 메리가 나가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얼굴까지 발갛게 달아올랐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메리의 얼굴에 근심인지 짜증인지 모를 표정이 떠올랐다. 메리는 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메리

흠에는 마음이 없으니까. 흠은 때려도 상처 입지 않으니까. 흠은 언제나 내 손길을 기다리니까, 나는 이 생각은 붙여두고 할 말을 고평했다.

“일단은 취미지.”
메리는 만족한 듯 다시 모니터로 눈을 돌렸다. 칭찬 받지 못했지만, 화를 내지도 않았으므로 이건 분명한 성공이다.

그 뒤로 조소 학원에 다녔다. 어려웠지만 즐거웠다. 흠은 항상 내 손길을 기다렸다. 내가 그 바늘에 닿혀 줘도 흠은 단 한 번도 나를 불편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하게 내 의지대로 존재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내가 미숙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만지면 만질수록 나아지는 것도 마음에 들었다. 흠은 나의 모든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드디어 메리의 얼굴을 만들었다. 나는 뜰어서 메리를 학원으로 데려와 그 조각을 보여주었다. 메리는 잠시 나의 조각을 지긋이 바라보다니, 킁킁거리며 살짝 웃었다.

“내가 만든 거야?”

메리가 말했다. 나는 감지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고민하다가 맞다고 대답했다. 왜 그랬던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라고 해야 했다. 예상대로 메리는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깔깔거리면서 웃었다. 메리가 너무 숨이 넘어갈 듯 웃어서 학원이 돌아선 사람들이 메리를 흘끗흘끗 쳐다봤다. 메리는 시선을 느끼고 웃음을 꼭 참으며 침호흡했다.

“누구를 만든 거야?”

메리, 당연히 메리다. 그 대답을 하기에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고민했다. 몇 번이고 고민하다가 나는 친구가 참고하여 만들던 사진을 하나 가리켰다.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아마 예쁜 연예인 사진 여러 개를 모아둔 한 장에 모아둔 사진이었다. 딱히 통일감은 없었던 것 같다. 그냥 연예인 들은 다 예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더니 한 연예인을 가리켰다.

“이걸 만든 거지?”

메리가 말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메리는 웃음을 꼭 참고서 다시 내 조각을 보았다. 뉘뉘, 눈꼬리가 너무 내려가 있지 않아? 좀 더 올려야지. 그리고 웃는 얼굴로 하지 그래? 너무 우물쭈м보이잖아. 메리는 그 뒤로 몇 번이고 수정 사항을 말하며 내 조각을 문질렀다. 메리의 감지에 적절한 흠이 붙자, 메리가 살짝 인상을 썼다.

메리가 내 얼굴을 한 번이라도 쳐다봤으면 어땠을까? 나는 그가 비난받을 때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 노력했는데, 왜 메리는 나를 단 한 번도 돌아봐 주지 않지? 메리는 조소 학원 선생님께서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물었다. 그는 메리에게 화장실 청소를 할 것이니 빨리 다녀와 달라 말하며 작은 마스콧트 케리터가 달린 화장실 열쇠를 주었다. 거짓말이었다. 선생님은 청소는 학원 문을 닫기 전에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메리가 학원 문을 나가자, 선생님은 다정하게 물었다.

“물 마실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은 말없이 내 조각 위에 남아있는 메리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그는 내게 조용히 관찰나고 focused. 그때 나는 울먹였다. 보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울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머금고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학원의 분위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다. 다들 나를 쳐다보지는 않지도 않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메리를 용하고 있었을지, 메리에게 맞장구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불분했다. 메리가 빨리 돌아오면 했다. 몸이 안 좋다고 집에 갈 수도도톡 말았다.

곧 메리는 돌아왔다. 메리는 입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가 내 얼굴을 보고 얼굴이 입꼬리를 내려갔다. 나는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 메리가 나가고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얼굴까지 발갛게 달아올랐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메리의 얼굴에 근심인지 짜증인지 모를 표정이 떠올랐다. 메리는 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했다. 메리

윤승희

는 선생님에게 목례하고는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메리는 나를 차에 태우고 나를 거울로 훑거룩거룩 쳐다봤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너 학원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 네가 그런 거짓말을 할 애가 아닌데...

3년이 지났다. 그 3년 동안 메리는 점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았다. 이 부분에서 나는 메리가 딱했다. 그의 직업은 그의 삶이었으니까. 나는 그냥 꾸준했다. 늘 흠에 그림을 그렸다.

언젠가 조소를 업으로 삼겠다고 메리에게 말할 때, 메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다. 내가 상을 차리고 밥을 먹자 말해도 메리는 방에 박혀서 글만 썼다. 난 그래도 메리에게 밥을 먹자 말하고 안부를 전하곤 했다.

어느 날 학원에서 돌아오니 메리는 방에 있었다. 집 안이 어수선했다. 메리의 방문 앞에 놓여있던 큰 책장이 엎어져 책이 굴러다녔다. 거실에 떨어진 원고지들이 메리의 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휴지 뭉치가 집안에 굴러다녔다. 메리가 먹은 듯한 시기가 주방 식탁에 남아 차갑게 식어있었다. 남김 음식물도 그대로였는데, 겨울이라 날파리가 꼬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톱패딩을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았다. 패딩이 만드는 몸과 소파 사이의 부유감이 불쾌했다. 점점 땀이 나는데 벗기 싫었다. 나는 굴러다니는 책에 눈을 맞추었다.

『이방인』, 『오이디푸스 왕』, 『프랑켄슈타인』... 메리는 한국 밖의 것을 좋아했다. 그가 사랑한 건 그의 현실이 아니라 그를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었다. 메리는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어를 할 줄도 모르지만, 항상 한국 외의 것을 동경했다. 메리는 말했다. 자신은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글을 쓴다고, 메리가 직접 자신의 수필에 썼다.

“나는 네가 좀 더 삶다운 삶을 살길 바라는 거야.” 갑자기 방에 앉아 있던 메리가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더웠다. 따끈한 땀이 내 관자놀이를 지났다.

“이젠 힘들어. 널 먹여 키우는 게 내 삶이었는데. 이젠 정말 힘들어. 너마저 이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메리가 말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메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내 자식을 만들고 싶어. 내가 꿈 꾸는 거야.”

내가 말했다. 메리를 보았다. 메리는 울고 있었다.

어전혀,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벗어... 옷. 담게. 뭐 하는 거니.”

“뭘 쓰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메리의 글에 관해 물었다.

“칼럼.”

메리가 짧게 답했다.

“소설은?”

“안 써.”

“왜?”

나도 내가 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말한게 아니라 내 입이 말한 거 같다.

“아무도 안 보니까.”

메리의 답은 단순했다. 메리는 정말 불쌍하다. 메리가 이상하다. 메리가... 무섭지 않았다. 메리도 메리의

소설도.

또 시간이 지났다. 아마 5년은 지났을 거다. 나는 작은 성과를 냈다. 어느 전시회에 내 조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메리는 새 소설을 썼다. 하지만 전처럼 주목받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메리가 침울해져 있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어서, 메리에게 내가 전시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내 작품이 올라간 건 단 하나지만, 그래도 나의 성과를 보면 메리도 기뻐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메리는 바빴다. 이제 글을 매일 쓰지 않았다. 그 대신 어디론가 다녀오는 것 같았다.

메리가 다녀오면 항상 향냄새가 났다. 어디 다녀왔나 물어보면 할머니 묘에 다녀왔다고 했다. 요즘 글이 써지지 않기에 다녀온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메리도 기뻐할 곳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나로는 부족했나, 하고 조금 자괴감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 때쯤엔 나도 조금씩 돈을 벌었다. 나는 메리를 태우고 작은 모닝을 운전했다. 그날은 봄이었지만 더워서 에어컨을 켰다. 이젠 봄도 덥다. 전시장은 꽤 컸다. 모든 작품을 천천히 둘러본다면 40분은 족히 걸릴 것이다.

메리는 계속 표정이 없었다. 그러다 내가 만든 조각 앞에 섰을 때, 메리는 굳었다. 나의 조각은 두상 조각이다. 그의 얼굴엔 눈도 코도 입도 없고 깨끗하다. 대신 그 얼굴엔 수많은 흉터가 있다. 메리는 계속 나의 작품을 봤다. 메리의 귀가 달아오르는 것이 보인다. 나는 당황했다. 처음 메리를 조각했을 때가 생각나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메리는 비웃지 않았다. 그냥 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대답했다.

“잔인하네.”

메리가 말했다. 웃는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 모르겠는 얼굴로.

전시회가 끝난 후에, 작품을 집으로 가져왔다. 나의 작은 수납함에 그것을 올려두고, 옆에는 포장용 박스를 두었다.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생각이었다. 메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만든 것. 오직 나만의 소유물. 이것만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나는 분명 인정받을 만한 사람일 거다.

다음날 자고 있는데 몸이 흔들렸다. 정확히는 집안이 흔들렸다. 무거운 물체가 바다에 떨어진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 보니 하얀색 자기 조각이 메리 앞에 어지럽게 떨어져 있었다. 나는 수납함을 봤다. 내 조각이 없었다.

메리를 보았다. 메리는 등을 돌리고 있어서 메리의 뒷모습만 보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떨린다. 메리가 태연히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와 잔해를 치운다. 분명하다.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당장 메리를 밀치고 소리 질렀다.

메리의 말이 웅얼거리며 들렸다. 메리가 부럽다. 소설은 출판하기만 한다면 한 책을 갈가리 찢어도 훼손되지 않는데, 자신은 그대로인데 내가 잘 나가기 시작하는 게 싫어서 질투했나? 평생 모른척하고 있던 감

정이 심장을 짝 채우는 것 같았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메리를 죽일 거다. 죽여야 한다.

그날 이후 메리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다른 말을 꺼내곤 했다. 나는 그 뒤로 칼과 농약을 사 봤지만, 메리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메리를 찌를 수도, 농약을 탈 수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갔다. 메리가 내 작품을 꺼 버린 지 6개월도 더 지났다. 곧 있으면 추석이였다. 우리는 항상 추석에 무언가를 해 먹고는 했다. 메리는 그게 제사 대신이라고 했다. 멍했다. 메리를 어떻게 없앨지 그 생각뿐이었다.

“추석답게 동그랑땡 같은 건 어때? 손목 아프다고 했지? 내가 다 할게.”

메리는 내 눈치를 보다가 말했다. 확실히 메리는 예전 같지 않다. 나는 그러라고 했다. 그리고 보니 메리는 집중하면 뒤에서 뭘 하는지 잘 눈치채지 못했다. 메리가 요리할 때 찌러야겠다. 메리는 요즘 글도 자주 쓰지 않아서 끈란하던 참이었다.

“요즘도 잘 안 나가? 소설.”

내가 물었다. 메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할머니가 내 꿈에 나왔어. 메리라는 이름에 귀신이 붙었다. 마침, 동그랑땡을 하기로 해서 말하는 건데, 귀신이 메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대. 그래서 글이 안 팔리는 거라나 뭐라나... 메리가 하도 열심이라 나한테 말해주는 거래.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면 메리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한데... 고기 같은 거면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

내가 말했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메리도 나도 제사니, 귀신이니 하는 건 영화나 소설에서 본 것뿐이다. 나는 적당히 지어낸 것이다. 그냥 메리를 골려주고 싶었다. 글이 안 써진다고 절이나 해대는 그가 한심해 보이기도 했고.

메리는 눈을 반짝였다. 어릴 때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꼈는지 모를 거라 말하며 일찍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는 법을 아직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1시간 넘게 떠들었다. 메리는 변했다.

추석 당일. 나는 깨자마자 잠화점에서 산 칼의 포장을 벗겼다. 내 손안에 속 들어오는 크기였다. 몸을 찌르면 어려울 테지만 목을 찌른다면 한 방이다. 체육복을 걸치고 그 주머니 안에 칼을 넣었다. 밖으로 나오니 메리는 허둥대며 요리하고 있었다. 메리가 해 둔 동그랑땡들이 모락모락 김을 내며 기름중이 위에 쌓여있었다.

내가 낮잠을 잔 모양이다. 시계를 보니 벌써 12시가 다 되어갔다. 주방은 기름이 사방팔방 튀어 미끈거렸다. 메리가 압전히 뒤돌아 있을 때가 없어서 주머니에 넣은 칼을 몇 번이고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주방을 둘러보다 은박지에 쌓인 어떤 덩어리를 보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돼지고기가 다져서 쌓아 올려져 있었다. 내가 그러고 있자, 메리가 말했다.

“이러니 진짜 가족 같지 않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무슨 소리야. 라고 말을 하려다가 말했다. 대신 나도 돕겠다고 했다. 동그랑땡의 양이 너무 많았다. 줄 사람도 없는데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아까 보았던 돼지고기 문치는 건들지도 않았

는데 말이다.

메리가 정신없이 고기를 구워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현기증이 몰려왔다. 나는 고기 문치 앞에 서서 고깃덩어리를 주물렀다. 흠만큼 익숙하진 않지만, 충분히 재밌었다. 물경거리는 촉감이 이상했다. 나중에 메리를 찌를 생각을 하니 소름이 돋아서 더 주물러냈다. 죽은 메리는 어떨까? 평소와 달리 조용하겠지. 그래도 그가 웃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만하자. 충분해.”

내가 말했다. 결국 그 고깃덩이는 건들지도 못했다. 메리가 아깝다며 남은 고기는 함박스테이크로 만들어 먹자고 했다. 메리는 주방을 땀나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드디어 칼을 쥐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이 살짝 떨렸다. 메리의 목에 찌르는 시늉을 몇 번 해 봤다. 팔을 얼굴 뒤로 보냈다. 찌르기만 하면 된다.

그때 메리가 웃었다. 나는 놀라서 칼을 떨어트렸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거 아빠니?”

“아빠?”

은박지 안에는 편하게 웃으며 눈 감고 있는 메리의 얼굴이 있었다.

“메리잖아.”

“애는. 그만 메리라고 불러도 돼. 나라고? 아니야. 아빠잖아. 네 아빠랑 똑 닮았어. 고깃덩이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그래도 너 중학생 때부터 조소 학원 보내길 잘한 거 같다.”

“아빠가 누구데?”

“누구긴. 네 아빠.”

메리는 메리였다. 아주 오랫동안. 하지만 그 이전에 내 엄마였다. 머릿속이 밝아지는 것만 같다.

“내가 안 보여줬나?”

메리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사진첩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바다와 정원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었다. 웃는 얼굴이 엄마와 똑같았다.

“하하. 부부끼리는 닮는다잖아. 너도 나랑 웃는 얼굴이 똑같다? 대신 너는 조금 더 눈썹이 올라가.”

“왜 나한테 안 보여줬어?”

“난 보여준 줄 알았어.”

엄마는 어떻게 아빠와 만난 이야기,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죽은 이야기, 내 앞에 형제가 네 명이나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나는 물레 칼을 주위 들고는 대신 꺼내지 않았다. 나중에 그 고깃덩이는 내가 먼저 함박스테이크로 만들어 버렸다.

며칠 후에 나는 독립할 거라고 했다. 엄마도 메리도 죽이기 싫었다. 엄마는 나의 눈치를 보며 반대했지만, 엄마도 결국 내가 나갈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메리라는 이름은 좋다. 메리의 이름은 메리가 정한 거다. 메리라는 이름은 메리의 책에만 쓰이는데, 메리는 메리의 의미가 ‘행복한’이라 좋다고 했다. 나도 다른 이도 엄마를 메리라 불렀다. 이유는 당연히 엄마가 바라서다.

평생 같이 살면서 엄마는 행복을 몰랐다. 가족도 몰랐다. 엄마는 메리만 알았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적어도 그날 메리는 새로 태어났다. 그날 나는 프랑켄슈타인처럼 메리를 새로 빚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좀 더 나이를 먹었을 때, 드디어 나의 괴물을 연민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을 수 있었다.

소설 부문 심사평 : 서사의 본령과 열정 사이

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일상을 지배하는 문화적 지형에서, 서사의 본령에 충실하면서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응모작들을 마주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향유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독자들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인식과, 기본에 충실한 글쓰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창작을 향한 열정들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독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완만한 실종 계획」은 '실종'이라는 모티프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 발상은 흥미로웠으나 그 발상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정보를 던져 주어 함축성의 묘미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맹무새」는 서사적 상황이 주목할 만한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그 상황을 한 편의 소설로 확장해 나가기에는 상황에 담긴 의미가 모호하고 성격화도 미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겨울」은 소설적 메시지는 유의미하게 설정했으나 플롯의 전략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서사적 긴장감이 미흡하고 결말도 느슨하게 구성돼 있어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쓴 뒤에야」는 소재나 문장력에서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소설이었으나, 서사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우연성을 계기적인 요소로 끌어내지 못한, 즉 우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아쉬움을 줍니다. 서술자가 말이 많다는 점도 결림들이 되고 있습니다.

「메리, 메리 프랑켄슈타인」은 공감력을 지닌 주제 의식을 함축적으로 풀어내는 솜씨가 상당했습니다. 전개되는 상황이나 의식의 내면을 건조하고 병행한 말로 드러내는 서술은 독자가 작품의 서사를 자기 서사로 수용하게 하는 효과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덕에도 불구하고 결말 부분의 완성도가 미진했습니다. ‘아빠’라는 존재가 표면에 떠오르면서 서사적 긴장감이 완화되고 갈등의 해소에 이르게 되는 단계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설정되었더라면 작품의 함량이 좀 더 풍부해졌을 것입니다. 가작으로 내는 이유는 이 마무리의 미흡함에 있지만, 문장 구사 능력을 비롯한 서사적 역량이 예사롭지 않기에 이후의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김동원(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소설 부문 수상소감



윤승혜(인문 3)

글을 쓸 때마다 창작이 무엇인지, 제가 쓰고 간 글에는 뭐가 남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창작의 과정이 온전히 작품과 저의 시간이지만, 작품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작품은 온전히 저의 소유가 아니고 독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만들었든, 제 작품을 본 사람 하나하나가 제 작품과 감상한 경험을 다르게 느낍니다. 작품은 여전히 작품 자체로 존재하고, 제가 만들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지만, 작품을 세상에 내보이고 겪는 경험은 제어할 수 없습니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은 어느 과학자가 인조 인간을 만들고 일어나는 비극을 담은 소설입니다. 책을 읽고 아무 목표 없이 놓인 인간은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메리 셸리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신은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또 인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결과는 시간이 지나며 놓아줘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쏟았든, 우리가 만든 결과를 위해, 그리고 저희 자신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결국 자식을 독립시키듯이요.

「프랑켄슈타인」을 모티브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이 저와 저희 세대와 닮아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설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독자 분들이 제 소설을 통해 훌륭한 작가인 셸리와 그의 작품을 알아보며 위대한 작품을 만나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당신은 '죽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언제 다가올지 모를 죽음이 낯설고 피하고 싶은 일로 받아들여질 테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피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남는다. 특히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이렇듯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하지만, 막상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이러한 감정들 사이로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상조업체 '꽃별천지'의 대표 김범진(32) 장례지도사다. 그는 임종 직후 시신 이송부터 장례 절차 조율, 발인 등 장례식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고인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유족과 함께 꾸려간다. 고인을 '가족'처럼 인식하고, 이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그들의 마음이 쓸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책임진다. 남겨진 이들이 다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주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 아닌 '삶의 일부'로 바라보기를 희망한다. 그가 말하는 죽음은 남은 이들이 떠난 이의 생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방식이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지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그의 시선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사진 : 박석희 기자

가장 아름다운 이별을 설계하다

‘꽃별천지’ 김범진 장례지도사

스물다섯, 죽음을 되돌아보다

그가 처음부터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소한 직업에 가까웠다.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던 그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다.

“장례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시신 뉘는 일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당시에는 젊은 장례지도사도 많이 없어서 더욱 알기 어려웠어요. 대신 지루함을 싫어하는 제 적성에 잘 맞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장례지도사로 일하던 친구에게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받았다.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부탁이기에 선뜻 수락했다. 그는 친구를 만난 다음 날 친구가 일하는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렇게 직접 마주한 장례지도사로서의 업무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었다.

“동네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장례지도사로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겁도 많고 미신도 많이 믿어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내일 일하는 장례식장에만 가보라고 제안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지도사가 하는 일을 지켜봤어요. 안치실에서 친구가 시신의 턱을 열었을 때 피랑 복수가 나오는 광경을 보고 도망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유족이 고인을 모시는 입관식을 봤을 때 김 대표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보고 도망쳐 나왔던 시신에 유족들은 입을 맞추거나, 얼굴을 맞댔다. 고인도 살아생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저는 시신이 무섭고 거북해서 도망 나왔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고인을 꺼안고 입 맞추는 모습을 보며 죄송스럽고 민망했죠. 장례지도사의 업무처리 과정을 처음 보면서 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진 출처 : '장례지도사 김범진' 유튜브 채널

▲김 대표가 유족과 장례 절차를 상담한다.

꽃별천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이후 김 대표는 장례지도사의 일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본인의 손으로 모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상조업체에 취직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며 장례지도사로서의 업무를 배우나갔다. 장례지도사 교육원에서 350시간의 교육시간을 수료함과 동시에 장례 업무 실습도 병행했다.

“처음에 이 일을 접하고 나서도 장례지도사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배워만 두고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일단 배워두고자 했죠. 장례지도사를 하려면 자격증이 필요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야간에 장례식장에 따라다니면서 장례식의 전반적인 업무를 배웠어요.”

처음 장례지도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그를 둘러쌌다. 장례지도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풍토와 열악한 근무여건 탓이었다. 자신보다 어린 나이의 장례지도사를 하대하거나 불신하는 시선도 그에게는 일상이었다.

“처음 장례지도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친구들은 놀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았죠. 일을 할 때는 어린 게 무슨 장례를 진행할 수 있겠냐고 따지는 분도 계셨어요. 언제 장례식장으로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신체 리듬이 많이 깨졌죠. 그 여파로 한때 우울증을 앓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김 대표는 장례지도사 업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유족들에게 끝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장례 일을 하다 보면 가정에 있는 그의 가족을 떠올리게 돼, 고인의 가족이 나의 가족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잘 모시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고, 추후 다른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을 때 김 대표에게 연락해 장례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장례지도사로서 일을 하면서 많은 가족분들을 만났어요.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떠오르면 유족이 제 가족처럼 느껴져서 최대한 성심껏 모시기 되더라고요. 그중에는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저에게 장례 진행을 한번 더 요청하는 분도 계시죠. 그분들은 저에 대한 좋은 기억과 믿음을 바탕으로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장례식 현장에서 느낀 책임감에서 나아가 직접 ‘꽃별천지’라는 상조업체를 설립했다. 꽃별천지라는 이름은 그가 어릴 적 하던 놀이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꽃나라, 별나라, 천국, 지옥 등 죽으면 갈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정하지는 의미다. 그는 꽃별천지를 통해 장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진심으로 고인을 존중하는 장례를 선사하고자 한다. 그동안 같이 장례지도사 일을 하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일을 하고 있다.

“장례지도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돈만 보고는 절대 오래 하지 못하는 직업이거든요. 이전에 일하던 곳에서 장례 비용을 값비싸게 책정했을 때 지분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장례를 진정성 있게 대하는 사람들만 모아 꽃별천지를 설립했죠. 광고, 홍보비용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장례를 진행하고 있어요.”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다

꽃별천지 운영과 더불어 김 대표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한다. 주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장례 현장의 이야기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장례가 지나치게 정형화된 방식에 머물러 있기에 폭넓은 방식의 장례 문화가 생기길 바란다. 죽음을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청년이 삶의 마지막을 한 번쯤 떠올리게 하고, 장례 문화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의 장례는 너무 단일화된 방식 같아요. 장례식장은 엄숙해야 하고 영정사진은 무표정이어야 하는 것처럼요. 저는 향후 제 장례식장이 저의 전시관이었으면 해요. 고인이 살아온 사진이나 자랑하고 싶었던 것 등을 보여주는 거죠. 현재와 같이 어렵게 느껴지는 장례식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례업을 지속하면서 남은 이들이 고인의 삶을 풍부하게 기억할 수 있는 장례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는 죽음을 삶과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두기보다는 언젠가 모두가 경험하게 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닌 떠난 이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과거를 추억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떠난 사람을 마음 한켠에 애뜻함 추억으로 간직하게 하고, 남은 이들이 고인을 다시 떠올리며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이 죽음을 마주할 때 순간의 감정과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기억이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 주는 시기가 오니까 그걸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면 돼요. 떠난 사람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이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을 다루고 정리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각자 자신의 속도로 기억을 정리하고 애뜻함을 곱씹어 나가다 보면, 죽음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사진 출처 : '장례지도사 김범진' 유튜브 채널

▲영정 상 위에 초를 올리는 김 대표

주식, 자본과 심리가 얽힌 시장을 비추다

코스피종합지수(이하 코스피 지수)가 고공 행진과 하락 조정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투자 열기가 커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상승세의 원인과 향후 시장 흐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생에게 주식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경제 전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기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이유를 이해해 봐야 한다. 지금부터 주식의 개념과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자.

주가를 결정하는 힘

'주식'은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이자 투자자에게 기업의 일부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는 자산이다. 투자자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되며,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경우 그 성과를 수익의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은 단순한 가격 게임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함께 나누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은 '주식시장'이다. 주식시장은 각종 경영 정보 공개, 기업 분석, 투자 의사결정 등이 이뤄지는 핵심 공간으로 기능하며 자본의 흐름을 형성한다. 기업은 이 시장을 통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필요한 돈을 모아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 국가는 일자리 증가,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

주식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발행시장은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에게 주식을 처음으로 판매하는 단계다. 상장은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다. 기업이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각종 공시 자료를 준비하면 상장 절차를 총괄하는 증권사는 공모 계획과 주식 가격을 설계한다. 이후 기관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과 청약이 진행된다.

상술한 발행 과정을 거쳐 상장을 마친 주식은 상장일에 거래소에서 사고 팔리며 본격적으로 유통시장에 진입한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주주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단계로 기업이 아닌 투자자들끼리 소유권을 주고받는 시장이다. 해당 시장에서는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형성된다. 이곳에서 주가는 매수와 매도 주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결정된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면 거래소는 가격과 시간 순서를 기준으로 호가를 맞춰 체결하는 형식이다. 임지

은(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는 "유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수록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하고, 기업은 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는 금리, 물가, 통화량, 환율 등 여러 경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통화량이 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돼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자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 역시 주가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돼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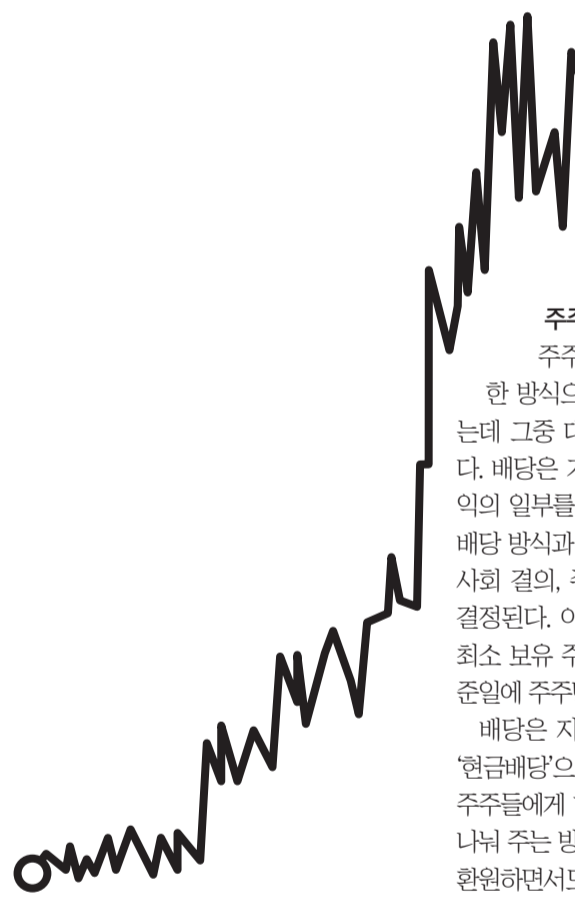
 코스피종합지수

4,194.82

코스피 상승 원인 복잡적

주식시장 구조가 흐름 좌우

국내 증시 상승세 이어질 전망



'위험회피성향(Risk Aversion)'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투자 심리를 뜻한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전망, 군중심리, 솔림 현상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쉽게 흔들리며 이는 매수·매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중호(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특임 교수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심리 변화가 수요와 공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가는 투자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주주 수익의 두 갈래

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배당'이다. 배당은 기업이 일정 기간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배당 방식과 규모는 회사의 배당정책과 이사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이때 배당을 받기 위해 특별한 최소 보유 주식 수는 필요 없지만 배당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배당은 지급 형태에 따라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으로 나뉜다. 주식배당은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한 주식을 나눠 주는 방식이다. 배당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면서도 회사의 현금을 보존할 수 있

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을 지급할 때보다 재무 부담이 적고 주식을 받은 주주가 이를 계속 보유하면 기업의 자금 유지에 기여하는 효과로도 이어진다.

현금배당은 말 그대로 주주가 기업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다.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주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정해진 배당금이 주주의 계좌로 입금된다. 주주는 즉시 현금을 확보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현금이 빠져나가 추가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박세영(노팅엄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과) 교수는 "현금배당으로 기업의 보유 현금이 줄어들면 주식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는 배당 이외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시세차익'을 통해서다. 시세차익은 주식을 팔 때의 가격이 처음 샀을 때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살 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이다. 이때 수익은 기업의 배당정책과 무관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투자 심리, 시장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투자 기회가 된다. 김 교수는 "시세차익은 배당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성장주 투자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코스피의 구조와 상승 요인을 짚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장기업의 규모와 요인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뉜다. 이중 코스피는 일정 수준의 재무 안정성과 규모를 갖춘 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다. 기술 성장성과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모여 있는 코스닥과 구분된다. 박 교수는 "코스피가 안정

적인 실적과 자본력을 갖춘 소위 '대기업'이 중심을 이루는 시장이라면, 코스닥은 미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국내 경제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대거 상장돼 있어 시장 전체의 흐름이 곧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특징을 지닌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지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 비중이 높다. 박 교수는 "코스피는 '한국 경제의 거울'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 전반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수출 회복과 금리인하 기대가 맞물리며 나타난 이례적인 흐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수가 오르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수급 개선이 이뤄져 시장 유통성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흐름은 불확실성 완화와 규제 개선,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한 당분간 유지된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시장의 기본 여건이 안정되고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자본 유입을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책이 거론된다. 불공정거래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다. 특히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을 막고 모든 주주가 공정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특임교수는 "시장의 신뢰는 자본 유입의 가장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제보하기

당신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담겠습니다

주소: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hansungnews@gmail.com



@hansungnews



@hansungnews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마주 앉을 때 보이는 것들

본교 교수노동조합 측이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인선 개인 의혹을 제기했다. 교원대표 선출을 대학본부가 주도하며 교원 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학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적 이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학생의 권리, 학습 여건, 등록금 수준 등을 심의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기구다.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학생사회로 곧바로 번진다. 이번 교원대표 선출 논란은, 이 중요한 기구가 과연 누구의 손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번 논란의 시발점은 교수회의 운영 방식에 있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정관』과 『한성대학교 학칙』은 교수회를 전임 교원을 대표하는 기구로 규정하며, 평의원회 교원대표 역시 교수회 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만큼 교수회의 독립성과 대표성은 평의원회의 구성에도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그런데 지난해 학칙 개정을 통해 총장의 자문기구였던 교수회가 전임교원 대표기구로 전환되면서, 총장이 교수회의 장(長)을 겸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대표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전임교원 약 70%가 가입한 교수협의회는 해당 개정안을 보고 대학본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 기회가 막힌 상황에서 교수회 회의까지 대학본부가 주도했다면, 교수조합이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화를 비껴간 결정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를 만들고, 한 번 흐트러진 흐름은 되돌아오기 어렵다.

본지의 취재 결과 대학본부는 이번 평의원회 인선 과정에서 절차적 이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규정 준수 여부'가 아니다. 그동안 제기돼 온 교수사회의 우려에 대학본부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마주 앉아 조정과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는지에 달려있다.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가 특정 주체의 영향력 아래 놓일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바로 '공동체성'이다. 의사소통의 경로가 비틀리기 시작하는 순간, 대학은 더 이상 열린 교육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와 관점이 충돌하며 균형을 잃기 쉬운 구조로 바뀐다. 그 안에서 구성원의 의견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될 위험마저 커지게 된다.

출발점은 언제나 대화여야 한다.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않고 대학본부가 대표기구와 마주 앉아 이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라, 대학이 어떻게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인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교본이기도 하다. 구성원의 목소리가 제자리를 찾고 그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배움이 되는 곳. 그 모습을 증명해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름을 '대학(大學)'이라 불러도 좋을 않을까.

이승희 편집국장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지난 22일 이태원 광장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트랜스해방전선 외 58개 시민단체는 각자의 성 정체성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보건기구와 달리 한국질병분류정보센터는 성 소수자를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국내 의료 통계가 낮은 분류 기준을 유지하면서 성적 다양성에 사회적 낙인이 또다시 남게 됐다. 지금까지 틀에 갇혀 재단돼 온 성적 다양성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 기자수첩

군대 전역 후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캠퍼스 곳곳에 붙은 한성대 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접해보고 싶어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

입사 후 마주한 취재의 현장은 겉으로 드러난 갈등보다 훨씬 복잡했다. 단순히 보이는 사건들 속에도 보이지 않는 맥락이 숨어 있었다. 어떤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할수록 한 장면처럼 보였던 사건은 점차 더 넓은 배경을 가진 이야기로 다가왔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도 그만큼 확장됐다.

특히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기사는 '탈가정 청년'을 다룬 기획 기사다. 이전에 필자는 이들을 막연히 가출 청년으로 생각했

■ 낮선 길 위에서 마주친

지만 취재를 통해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이들은 폭력과 방임 속에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후 주거, 생계, 학업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 그럼에도 사회는 그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 일쑤였다.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그들의 삶이 단지 '가출'이라는 단어 하나로 축소되지 않도록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그 이후의 무게를 독자에게 온전히 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경험은 자연스레 더 큰 물음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왜 사회 문제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 삶에 몰두해 시야가 좁아지고 세상을 나와 타인의 문제로 쉽게 가르는 게 익숙해진다. 나와 직접 닿지 않는 일이라 여겨지면 선을 긋고 외면하기 쉽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기 위한 비

판적 시선조차 번거로운 수고로 느껴진다. 그렇게 밀려난 문제는 어둠 속에 방치된다. 하지만 작은 눈송이가 쌓여 대지의 풍경을 바꾸듯 여러 사람의 관심이 모일 때 비로소 문제는 빛을 받고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며 변화의 첫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필자는 한성대신문사 기자직 퇴임을 앞두고 있다. 기자라는 이름은 내려놓더라도 세상의 균형을 포착하는 시야만큼은 잃지 않으려 한다. 학보사에서 세상에 질문하는 법을 배웠으니 말이다. 작은 관심 하나가 변화를 향한 첫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한 만큼 더욱 깊고 더 오래 사회 문제를 응시하겠다는 다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 낙산에 올라

삶을 살아가며 겪는 일은 사람마다 모양도 크기도 각기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반면, 어느 한편에는 내 일을 고대하는 삶도 존재한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사실 삶에 가치를 논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무한한 우주 앞에서 인간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고, 아침에 일어나 밤에 눈을 감기 전까지 우리의 일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숨 쉬고, 먹고, 자는 이 평범한 반복은 사실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고 마는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들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늘 존재하기에, 그 소중함을 의식적으로 깨닫기 쉽지 않다. 우리는 보통 그것이 사라지고

■ 어찌 보면 당연한 것

나서야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낀다. 곁에 항상 존재했던 이가 떠난 후에야 함께했던 순간들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 나는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전장을 바라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시공간은 내게 가장 평화롭다. 이 평화는 곧, 내 삶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제 할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자기 전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이 모든 조건은 결코 쉽게 얻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 길을 걸어가다 무심코 마주친 예쁜 하늘, 운 좋게 바로 온 지하

철. 이 모든 것들이 비선형적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존재해 주었기에,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자기 전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삶은 수많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모여 이뤄낸 결과물이다.

오늘 밤 당신이 자기 전 누웠을 때 마음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이다.

삶에서 불변한 '당연한 것'은 없다. 사소한 것의 존재와 가치를 의식할 때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 소중함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전술(검공 2)



기자사령

임 부장기자 임지민(사회과학 1) 김혜윤(상상력 1) | 퇴 정기자 조수윤(인문 1)

정기자 김산(인문 1) 김연우(문문 1)

동정란

서화정(융합보안학과) 교수서 교수와 융합보안학과 학생들은 지난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주관한 'PQC Migration Challenge : 양자내성암호 전환 기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두 수상했다.

오세중(시응용학과) 교수오 교수는 지난 11월 본교 SW중심대학사업단이 주관한 '2025학년도 SW·AI 산학연계프로젝트 해외연수'를 기획·운영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관 김남용 편집국장 이승희 디자인 (주)나눔 커뮤니케이션

■ 의화정

겨울방학, 진로역량을 키우는 시간

겨울방학은 대학생에게 '쉼'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학기의 경험이 진정한 진로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은 실제 문제해결력과 협업 능력을 평가하는 경험 중심의 '역량 기반 채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량이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발휘된 복합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에 Spencer & Spencer의 빙산역량모델을 살펴보면, 단기간에 습득 가능한 지식과 기술은 빙산의 수면 위에, 행동을 장기적으로 결정짓는 자기개념, 특질, 동기는 수면 아래에 위치합니다. 자기개념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며, 특질은 끈기와 책임감 같은 성향, 동기는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내적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진로의 방향성과 지속력을 결정짓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겨울방학 동안 어떻게 진로역량 준비해야 할까요? 빙산역량모델의 하위요소 중 저학년(1~2학년)은 자기개념, 특질, 동기를 분명히 하는 시기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오늘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웠는가'를 기록하며 자신의 흥미와 직업가치관을 정립하고, 동아리,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 방향성과 직업 가치관을 한 줄 슬로건으로 작성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 나침반처럼 확실한 안내자 '북극성 교수'처럼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더불어 다양한 직업 강연과 전공 관련 콘텐츠를 접하며 '나의 신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일'을 상상해보세요. 고학년(3~4학년)은 직무(전

공) 지식과 기술을 실전에서 쌓아가는 시기입니다. 관심 직무를 정했다면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분석하고, 그 역량을 보여줄 경험을 정리하세요.

'문제해결, 협업, 책임감'이 강조된다면, 프로젝트나 인턴 경험을 통해 해당 행동이 드러난 사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회담 직무 현직자를 만나 자신의 가치와 직무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맞닥뜨리면 배울 수 있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방학에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저학년은 자기이해를, 고학년은 역량 실행과 점검을 통해 역량빙산의 깊이와 높이를 함께 확장하여 '진로와 꿈'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새학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봉미란(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교수

茶 차, 청년의 일상을 적시다

(편집자주)

‘일상다례(日常茶禮)’. 일상에서 차를 마시며 삶의 깊이를 더한다는 의미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시간의 틈 속에서 청년은 잠시 멈춰 자신만의 호흡을 되찾는다. 끝없는 경쟁에서 벗어나 차 한 잔을 우리고 작은 여유와 회복을 찾는 차 문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잠시 차 향내음을 맡고 온기를 느끼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쉼표가 된다.

맛춤형 차부터 티코스, 그리고 말차 격분까지. 오늘날의 다양한 차 문화는 과거보다 다층적인 경험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청년은 차의 향과 온도를 오감으로 느끼고, 다도(茶道)를 체험하며 차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접한다. 동시에 격식과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차를 향유한다.

이렇게 청년에게 차는 단순한 전통 음료를 넘어 일상의 틈새에 천천히 스며들며 매 순간을 부드럽게 적신다. 잔에 담긴 작은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여유와 사유, 그리고 그로 인해 다시 빛어지는 우리의 하루를 함께 들여다보자.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사진: 김혜윤 기자

▲기자가 처방받은 차를 따른다.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차를 다양한 형태로 즐기는 차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 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차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조 200억 원에서 2022년 약 1조 2,870억 원으로 4년 만에 약 28% 넘게 성장했다. 실제로 차 관련 행사나 가게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신정호(국제차문화과학대학원) 주임교수는 “청년층은 차를 단순 음료가 아닌 경험으로 즐기며 차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차 문화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작은 여유와 회복을 찾으려는 ‘웰니스(wellness)’ 문화에서 비롯됐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균형 있게 실천하며 일상의 만족도를 높이는 삶의 방식이다. 성과 중심 사회에 지친 청년은 차를 통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며 웰니스를 추구한다.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소장은 “치열한 삶 속에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차 문화는 일상 속 회복과 자기 돌봄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웰니스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서 차는 슬로우 라이프의 대표 주자로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대피소 같은 존재다. SNS와 숏폼 등의 콘텐츠가 시선을 쫓아 없애고 자극하는 삶 속에서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다. 카페에서 짧게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차의 향과 온도, 우려지는 시간을 함께 음미하는 방식의 천천한 휴식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승우(아도 티하우스) 대표는 “차는 ‘느림의 미학’이라며 “직접 찻잎, 다기, 찻잔 등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설명했다.

차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며 관련 행사에도 MZ세대가 잇따라 몰리며 ‘티(Tea)켓팅’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티켓팅은 차를 의미하는 티(Tea)와 매표를 뜻하는 티켓팅(Ticketing)이 합쳐진 단어로, 차 관련 행사 등의 티켓을 예약하기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복궁에서 진행되는 궁중 약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경복궁 생과방’ 행사 온라인 신청에는 매년 수만 명 이상이 몰릴 정도다.



“차를 마시는 것은 세속의 소란을 잊기 위함이다.”
- 린위탕

차방전, 마음을 치료하다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차를 즐기고 있다. 그중 개인에게 맞춤형 차를 추천해 주는 ‘차 큐레이션 카페’가 주목받는다. 체크리스트에 마음 상태와 취향을 적으면 그에 맞는 차 잎을 약봉지에 담아 처방해 준다. 심리 테스트와 같은 방법이다. 차 큐레이션 카페는 개인의 감정과 상황을 진단해 그에 맞는 한 잔을 제안한다.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 마음 상태를 기록하고 그에 맞는 차를 처방받는 경험은 취향을 발견하는 탐색의 시간이 된다. 단순히 맛을 고르는 행위가 아닌 지금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는 과정인 것이다. 박 소장은 “천천히 차를 우리고 음미하는 일련의 과정은 자기 성찰의 매개로 작용한다”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차방전’을 처방받고 있는 차 큐레이션 카페에 방문했다. 자리에 앉자 4가지 항목으로 된 체크리스트를 받았다.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싶다고 체크하자, 지금의 힘든 과정은 결국 더 좋은 결과로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설명과 함께 홍차가 나온다. 차를 우려내고 향과 온기를 음미하며 한 모금 마시는 동안 고단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진다. 차를 마시는 동안 차의 설명이 머릿속에 남아 방향을 잃은 마음을 붙들어 주는 느낌이다. 지금의 고초가 어쩌면 과정일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이 생기며 위로를 받는다. 차방전을 체험한 진효진(30)씨는 “차방전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감정을 돌아보는 지점을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차 한 입, 교양 한 모금

맛춤형 차를 접하며 생긴 흥미를 바탕으로 색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청년층 사이에서 ‘티코스’가 스톱 러서리로 인기를 끌고 있다. 티코스는 코스 요리처럼 차와 다과를 순서대로 제공하며 각각의 차에 담긴 역사와 매력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여 음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단순한 다과 세트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를 따라가는 미식 경험에 가깝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

차의 역사부터 다도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평소 접하기 힘든 차의 섬세한 향을 알고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이러한 학습형 체험은 차의 배경과 제조 과정, 다도 예법까지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어렵게 느껴졌던 차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티코스를 운영하는 정겨운(삼월항) 대표는 “티코스는 차의 배경과 다도 과정을 직접 배우는 경험을 제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차 문화를 보다 친근하게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의 세계를 파헤쳐보기 위해 티코스를 선보이는 첫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티코스에서는 차의 향과 맛에 맞춰 다과를 곁들였으며, 각각의 조합이 어울리는 이유를 들려줬다. 이어 6대 차류를 소개하며, 하나의 차나무에서 재배되더라도 온도와 제조 방식에 따라 향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통해 차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다채로운 향과 맛을 비교할 수 있었다. 나아가 차를 마신 뒤 어떤 향이 느껴졌는지, 향이 왜 그렇게 받아들여졌는지 현장에 있는 이들과 사견을 나누는 짧은 시간을 가진다. 티코스를 함께 체험한 위성민(35)씨는 “차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찻잎의 유래를 들을 수 있을 뿐 더러 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전했다.



사진: 김혜윤 기자



사진: 김혜윤 기자



사진: 김혜윤 기자

- 1 티코스에 제공된 4종류의 차
- 2 말차를 격분하는 중이다.
- 3 말차를 우유에 붓는다.

말차 거품이 만드는 순간의 몰입

차의 세계를 넓게 경험한 청년들이 이를 일상적인 취향으로 확장하면서 말차 열풍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공간에서 말차를 격분*하거나 쏟아진 말차를 찍어 올리는 ‘말차 스푼(Spill) 챌린지’ 유행이 대표적이다. 단순 음료 소비를 넘어 시각적인 즐거움과 일상 속 참여형 체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청년층에게 말차는 예쁜 색감과 커피의 건강한 대체제로 웰빙트렌드에 적중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높아진 인기로 힘입어 말차는 카페 메뉴로 확산되며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자리매김했다. 신 주임교수는 “선명한 녹색과 부드러운 거품은 시각적인 만족을 주고, 카페인 부담이 적

어 건강과 에너지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나이가 청년들은 직접 말차를 격분하는 ‘촉각적 경험’을 통해 순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차단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말차 가루를 물과 섞는 과정에서 차의 질감과 저어지는 소리, 거품의 형태까지 감각으로 받아들인다. 자신만의 박자와 호흡을 조절하며 명상과 같은 몰입 효과를 낳는 것이다. 격분을 통해 완성된 말차를 바라보고 맛보는 순간 성취감과 함께 경험하는 안정감은 격분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이다. 박 소장은 “격분 과정은 차에 집중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순간적인 몰입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말차를 애용하는 기자로서 격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끊임없이 저어 말차 거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팔이 저려왔지만 거품을 내고 우유를 부어 말차 라떼를 완성했다. 직접 만들어 보니 말차의 색과 향, 질감을 온전히 느끼며 순식간에 몰입했다. 격분은 일상의 잡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경험을 선사했다. 위 씨는 “다도는 본래 수행의 행위”라며 “거품을 내기 위해 바른 자세로 순간 집중해 격분하는 과정에서 잡생각이 사라진다”고 전했다.

차 문화는 전통의 격식에만 머물지 않고, 청년의 개인적인 감각과 취향을 반영한 폭넓은 문화로 확장될 전망이다. 청년이 차를 일상 속에서 여유와 몰입, 개인적인 성찰의 매개로 경험하며 다양한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주임교수는 “청년층의 생활방식과 결합한 다양한 체험과 시도가 주목된다”며 “앞으로 차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이끌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격분: 말차를 휘젓는 도구인 다선을 이용해 찻가루에 물을 부어 거품을 내는 행위



사진: 임지민 기자



사진: 김혜윤 기자

▲티코스에서 연꽃차를 우려낸다.